

노틸러스효성, 환류식 동전ATM 'Ubitus(유비투스) 9040' 출시



- 동전지폐 입금, 출금, 교환, 통장정리를 한번에!
- 동전 환류식 설계로 출금 동전의 충전 불필요
- 실시간 계수관리로 기기내 동전 수량의 정확한 관리, 마감시간 단축
- 금고 이중 강화문, 외부 침탈 방지턱 설치로 보안 강화

노틸러스효성(대표 : 류필구, www.nautilus.hyosung.co.kr) 이 동전과 지폐가 모두 입금, 출금, 교환이 가능하고, 통장정리까지 되는 환류식 동전ATM 'Ubitus 9040(RC-ATM)' 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도 동전 입출금이 가능한 동전ATM이 일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이 제품은 출금용 동전을 충전할 필요가 거의 없고 기기내 동전 수량이 정확하게 실시간 관리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위한 여러 특징점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 ATM과 비슷한 크기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365코너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앞으로 시중에 동전ATM의 보급 확산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기는 동전 입금함과 출금함이 각각 따로 되어 있어, 출금함의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은행 직원이 보충해야 했고 입금용량도 권종별로 동일하였다. 노틸러

스효성의 Ubitus 9040(RC-ATM)은 입금된 동전이 환류되어 출금 요청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출금 동전을 충전할 필요가 거의 없고, 입금 용량이 클 뿐 아니라 동전 권종별 거래량에 따라 입금 용량을 달리하여, 입금함이 다 차서 동전을 회수해야 하는 빈도를 감소시켰다. 그만큼 은행 직원의 작업을 위해 기기 가동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업무 마감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익일 출금 동전 보유량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유량 조절 기능, 입금된 지폐를 정돈하여 저장하는 기능, 환류함과 회수함의 동전 시재를 정확히 판별하는 기능 등을 지원하여 운영의 편리성을 높였다.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고객안내표시기(VFD), 15인치 대형 터치스크린 화면 적용 등 고객이 사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한 구조일 뿐 아니라, 금고부 이중 강화문과 외부 침탈 방지턱 설치 등으로 보안성을 강화했다.

노틸러스효성 윤성근 상무는 Ubitus 9040은 은행의 동전업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분석과 고객의 니즈 수렴 과정을 거쳐 개발되어 현재 많은 은행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연내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환류식 동전ATM Ubitus 9040 〉

대우일렉, 실속형 비데 ‘엘르(Elle)’ 출시



대우일렉(<http://www.dwe.co.kr/>, 대표 이승창)이 프리미엄 기능을 채용한 실속형 비데인 ‘엘르(Elle)’ 신제품(모델명 DOB-E335W)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은 30만원대 현실성 있는 가격에 촉매필터탈취, 공기방울 세정, 마사지 기능, 쾌변 기능 등 고급형 제품들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채용한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촉매필터 탈취방식을 적용하여 사용시 자동으로 불쾌한 냄새를 제거해주며, 은나노 항균 소재의 노즐을 채용, 살균 효과를 강화하였다. 또한 노즐 자동세척 기능과 고장을 스스로 진단하는 자가진단 표시기능을 갖춰 사용자 편의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함께, 세정수에 공기펌프로 공기방울을 만들어 넣어 부드러우면서도 세정력을 높인 공기방울 세정이 특징으로, 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노즐이 움직여서 향문 주위를 세정해주고 건조까지 해주는 원터치 자동 세정 기능, 어린이 체형에 노즐과 수압을 조절 시킨 어린이 기능과 3단계 고압 마사지로 괄약근을 자극해주는 쾌변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제품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여 높은 수압에서도 견딜 수 있는 초음파 진동용착 방식을 적용, 오랜 시간 이용 시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파워코드 좌, 우 타입 변경이 가능하여 설치 시 미관상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원터치 착탈로 양변기 사이즈에 관계없이 간편하게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여 설치 호완성을 높였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슬림한 최신 디자인에 블랙과 화이트 색상 매칭을 적용하여 고급스런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후면을 라운딩 처리하여 컬러형 양변기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가격은 39만8000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대우일렉은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철저한 품질력과 서비스를 통해 신규 구매층과 이미 비데 사용을 통해 안정된 제품을 찾는 기존 고객층을 대상으로 매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일렉, 전자레인지 벨기에 ‘최우수 제품’ 선정



대우일렉(<http://www.dwe.co.kr/>, 대표 이승창) 전자

레인지 제품이 벨기에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평가 받았다.

벨기에 소비자 연맹에서 주관한 성능평가에서 대우일렉의 전자레인지(모델명 KOC-GOUT)가 경쟁사 제품들을 제치고 최우수 제품 및 가격대비 가장 구매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결과는 소비자 연맹 발행지인 테스트아사(Test-Achats) 10월호 게재되었다고 대우일렉은 밝혔다.

이번 성능평가에서 대우일렉 전자레인지는 벨기에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7개 전자레인지 모델 중 기능, 편의성, 소음, 안전성에 대해 종합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당당히 1위에 차지했다. 특히 음식물을 다시 데울 때 골고루 열이 퍼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음식 데우기 기능조사에서 대우일렉은 유일하게 합격점을 받으며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이와함께, 평가받은 제품들의 가격이 최저 126유로에서 최고 1191유로인 가운데 대우일렉 제품은 149유로로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가장 구매가치가 높은 제품으로도 함께 선정되었다.

이번에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대우일렉 전자레인지는 컨벡션 오븐과 그릴, 전자레인지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고급형 제품으로 일반 전자레인지 정도의 12인치 크기의 피자 조리가 가능하며, 스팀 크리닝 기능을 채용하여 손쉽게 내부 청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테스트아사는 벨기에 소비자 연맹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맞추어 일반 소비재를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

뢰를 얻고 있다.

대우일렉 전자레인지 영업담당 임권식 이사는 "대우일렉 컨벡션 전자레인지는 4월 출시이후 프리미엄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앞세워 현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최우수제품 선정을 계기로 판매량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업계 첫 2048 x 1152 해상도 16:9 모니터 출시



- 16:9 포맷의 각종 멀티미디어 영상 왜곡없이 감상 가능
- '멀티 스크린' 기능으로 큰 화면을 최대 6개까지 분할 사용
- 16:9 모니터는 2012년까지 전체 LCD 모니터 시장에서 67% 비중 차지할 듯

삼성전자가 모니터 업계 처음으로 2048 X1152 해상도(QWXGA)를 지원하는 58cm(23인치) 16:9 와이드 LCD 모니터(모델명:2343BWX)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첫 16:9 LCD 모니터인 2343BWX는 하이그로시 블랙의 슬림 베젤 디자인을 기본으로, 16:9 포맷을 적용해 인터넷, 문서 위주의 모니터 사용환경에서 멀티

미디어 및 영상을 감상하기에 최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1024 픽셀(화소) 사이즈를 가진 웹페이지 2개를 병렬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A4 2장을 나란히 놓더라도 측면에 여유공간이 있어 가젯, 사이드 바 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다중작업에 유리하다.

2343BW를 기존 55cm(22인치) 16:10 모니터(1680x1050)와 비교해보면 늘어난 해상도로 인해 무려 33%나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여 줄 수 있으며, 작은 픽셀크기(0.249mm)로 인해 더 정밀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4:3 또는 16:10 비율의 모니터와 비교해 HD(고화질)/풀HD(초고화질) 콘텐츠 감상 시 이미지 왜곡 없이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멀티 스크린’ 기능을 설치해 사용할 경우 큰 화면을 최대 6개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다중작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동영상 명암비 20,000:1, 응답속도 5ms, 대기전력 0.3w의 저전력 설계 및 매직브라이트3, 매직컬러 등 다양한 부가기능들을 탑재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박용진 상무는 “이번에 출시한 2343BW는 향후 디스플레이를 주도할 16:9 포맷을 적용한 싱크마스터 첫 모델로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의미있는 제품”이라며, “삼성전자는 글로벌 모니터 1위 업체로서 16:9 비율로 모니터 형태가 전환

되고 있는 시기를 맞아 다양한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6:9 비율의 모니터는 오는 2012년까지 전체 LCD 모니터 시장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표 규격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 고성능 256GB SSD 본격 양산 돌입



- 보안성 강화, 저전력 설계 등 기술을 통해 고객 편리성을 극대화

차별화 제품으로 고용량 SSD 시장 창출과 플래시메모리 성장기반 확보

삼성전자가 고성능 컨트롤러를 탑재하여 쓰기 속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200MB/s로 높인 256기가바이트(GB: Giga Byte) SSD(Solid State Drive) 제품을 업계 최초로 양산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28GB SSD 양산에 이어 불과 4개월만에 두 배 용량인 256GB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고용량 제품군을 강화하고, 업계에서 가장 다양한 용량의 제품 라인업 (256/128/64/32/16/8GB)을 갖추게 됐다.

※ SSD 제품군 : 고용량 PC向 256/128/64GB, 저용량

PC向 32/16/8GB

256GB는 노트북 뿐만 아니라 현재 데스크탑 PC에 탑재되고 있는 HDD의 용량과도 대등한 수준이어서, 이번 양산을 통해 SSD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양산을 개시하는 256GB SSD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컨트롤러 기술을 통해 고성능을 구현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특히 쓰기 속도가 업계 최고 수준인 200MB/s로 높아졌다. 이는 현재 양산 중인 SATA II (3Gbps) SSD 제품군 70MB/s 대비 약 3배나 향상된 속도이다.

또한 쓰기 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읽기 속도 220MB/s와의 차이가 10% 이내로 축소됨으로써, 그 동안 쓰기 동작에서 읽기 동작 대비 20% 정도 속도가 저하되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고부하 환경에서 안정적인 고속 동작이 가능해졌다.

※ 256기가바이트(GB)의 저장 매체에 HD급 영화 25편을 저장할 때 SSD는 약 21분으로 HDD의 70분 대비 약 3배가 빠름. (256GB 삼성 SSD vs. 7200 RPM HDD, HD급 영화 1편은 10GB 기준)

이번에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컨트롤러는 특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소프트웨어 등 삼성전자의 SSD관련 제반 기술 노하우를 통합함으로써 성능을 최적화했다.

삼성전자는 금번 컨트롤러 기술을 '09년 출시 예정인 '512기가바이트(GB) SSD'는 물론 서버 SSD 및 저용량 SSD 제품군까지 확대 적용하여 EDP向 시장 주도를 위

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40나노급 낸드플래시가 탑재될 차세대 SSD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개발 기간 단축 및 개발비 절감으로 원가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256GB SSD는 데이터 보안·고속 삭제·저전력 등 차별화되는 기능을 덧붙여 고객 편리성도 극대화했다. 이번에 보완된 기능은 Safe(데이터 보안), Speed(고속 삭제), Slim(저전력·초경량)의 '3S'로 대변될 수 있다.

- ① Safe : PC용 SSD 제품 최초로 Full disk encryption 방식 사용 금번 제품은 Full Disk Encryption의 자체 암호화 키(key)를 탑재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 자체 암호화 키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SSD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저장 위치 및 원천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 하므로 해커가 낸드만을 분리하여 정보를 판독하거나 데이터 조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안성을 한 차원 더 높인 것이다.

※ Full Disk Encryption : PC의 데이터 해킹과 손상 방지를 위한 S/W & H/W 솔루션)

- ② Speed : 1분에 100GB 데이터를 완전 삭제 가능 256기가바이트(GB) SSD에서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삭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2.5분 정도로 HDD 최소 7시간 대비 무려 200배 이상 빠르다.

※ HDD Data 삭제 방식 : Overwrite 7번 이상 (Overwrite 1회 대략 1.5시간)

- ③ Slim : 초경량 Slim Design/저전력 특성으로 모바일 환경에 적합 삼성전자 256GB SSD는 두께 9.5mm, 무게

81g으로 2.5인치 128기가바이트(GB) SSD와 동급 수준이다. 또한 용량 및 속도가 128기가바이트(GB) SSD 대비 두 배임에도 불구하고 기가바이트당 전력 소모량'을 동등 수준으로 구현하였다.

※ 동작時 GB당 전력 소모량 : 256GB 0.0043W,
128GB 0.0039W

이처럼 삼성전자 256GB SSD는 고성능 컨트롤러 기술과 고객 편리성을 제고하는 차별화된 기능을 통해, 'Total SSD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09년 이후 본격 확대될 SSD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삼성전자는 '08년 PC 시장에서 이미 64기가바이트(GB) 이상의 대용량 SSD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이후 저가 노트북 및 서버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SSD 제품을 출시하여 신시장 창출과 SSD 채용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응용처별로 최고 성능의 SSD 제품을 적기에 확보하고 세계 유수의 세트(Set) 업체와 개발 단계부터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SSD 시장을 선점하고 플래시 메모리의 성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오토닉스 박환기 대표 〉

MD5-HF28 Series

최대 250분해능 고정밀 제어 가능, AC프리전원형 5상 마이크로 스텝 드라이버



오토닉스에서 신제품 "MD5-HF28은 100-220VAC"출시하였습니다. MD5-HF28 프리전원형 설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으며, 구동전류 조절을 통한 고속 고투크를 실현하였습니다.

- 100-220VAC 프리전원형 설계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공
- 구동전류(1~2.8A/Phase) 조절을 통한 고속 고투크 실현
- 바이폴라 정전류 펜타곤 드라이브 방식
- 마이크로 스텝(최대 250분할) 구동으로 저속회전, 초정밀 제어 가능
- 자기진단을 통한 다양한 경보기능(온도과승, 과전류) 구현
- 전면 ALARM LED 탑재를 통한 경보확인 가능
- 자동 전류 다운, 셀프 테스트, 사용자 구동/정지전류 설정, 원점 여자출력 기능 제공
- 외부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Photo coupler 입력 절연방식 채용
- 포장기기 위치제어, 반도체 이송장비, 비전 검사 장비 등 정밀제어를 요구하는모든 산업현장에 최적의 스텝 드라이버

* 구 KR-505G (단종예정) 업그레이드 대체품

(주)인터엠, 불황 속 IT 투자 '화제'



최근 경기 위축으로 많은 제조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감히 IT분야에 투자해 경영효율성을 높인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교회나 관공서, 야외에서 사용하는 특수 음향 및 영상설비를 제조하는 인터엠의 조순구 사장은 매년 사업을 하면서도 재고관리에 골머리를 싸매야 했다. 소비자 주문에 맞춰 생산하는 사업 특성상 총 1000여 개의 제품 라인업을 갖춰야 했고 그에 따라 관리해야 할 부품만 3만 여종이 넘었기 때문이다.

항상 두달 반 치에 해당하는 200억원의 재고를 쌓아놔야 했으며 주문 후 고객에게 제품을 넘겨주는 납기도 6주 정도 소요됐다. 특히 이러한 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하다보니 구매 담당 직원이나 생산담당 인원이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업무혼란도 매년 되풀이됐다.

연 매출 700억원을 상회하고 국내 특수 음향 및 영상설비(PA)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이었지만 적지 않은 관리 비용과 재고 손실은 지속적인 골치거리였다.

조 순구 사장은 “재고와 납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했다”며 “여러 고민 끝에 SAP ERP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ERP구축업체는 주로 대기업 ERP 컨설팅과 사업을 주로 수행해온 프론티어 솔

루션에 맡겼고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10억원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 ERP의 효과는 곧 나타났다. 납기는 6주에서 4주로 단축됐으며 재고는 사용한 만큼 자동으로 주문이 이루어졌다.

판매 현황을 기초로 미리 예측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은 중국 공장에도 이어졌다. 최근까지 중국공장에 ERP를 구축 완료하고 납기와 제조, 구매 시스템을 국내와 통일했다.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 공장 납기도 4주로 단축됐다.

조 사장은 “조만간 각 대리점 별 판매현황까지 분석해 마케팅 전략 자료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해 재고 관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ERP라는 기준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강조했다.

LG이노텍, 세계 최초 토크앵글센서 개발



- 차량용 토크센서와 조향각 센서 일체형 부품 개발 완료, 내년 상반기 양산
- 기존 대비 50% 초소형화로 시스템 장착성 및 가격경쟁력 높여
- 2010년 차량전장용 부품사업에서만 매출 1,000억원 달성

LG이노텍(대표 許永鎬, www.lginnotek.com)이 세계 최초로 차량용 토크앵글센서 (Torque Angle Sensor)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양산을 시작한다.

이 회사의 토크앵글센서는 기존의 조향 토크만을 감지하던 일반 토크센서를 한 단계 발전시켜 조향각을 동시에 감지하도록 개발한 토크 및 조향각 센서 일체형 복합 센서다.

토크앵글센서는 운전자가 핸들에 가하는 힘(토크)과 회전 방향 및 각도(조향각)를 감지해 필요한 보조 동력의 크기 및 방향을 판단케 함으로써 수시로 변하는 주행 환경에 맞춰 최적의 핸들 조작력을 제공한다.

LG이노텍이 개발한 토크앵글센서는 크기가 지름 90mm, 두께 30mm의 초소형으로 기존 토크센서와 앵글센서를 합한 것의 50%에 불과해 차량 전자장치 시스템에 대한 장착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선진 자동차 산업국에서는 유압식 조향장치에서 전동식 조향장치(Electric Power Steering)로 대체되는 추세”라며 “세계 최초로 토크 및 조향각 복합 센서기능을 실현해 차량용 전자부품 분야에서 기술력 및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특히 전동식 조향장치의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여성 운전자의 증가로 손쉬운 운전성이 요구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이노텍 토크앵글센서는 향후 운전자의 조향 의지와 전조등의 각도를 동조시킨 적응형 라이팅 시스템(AFS,

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이나 전자식 차체 자세 안정시스템(ESP,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등의 전장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해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LG이노텍 관계자는 “국내 대형 시스템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업체를 전략고객으로 확보해 오는 2010년 차량용 전장사업에서만 1,000억원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부문의 고부가가치 부품 복합모듈화로 고객가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 TV폰 시장도 터치폰으로 공략



LG전자가 유럽형 터치 TV폰(모델명 : LG-KB770)을 27일 독일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출시한다.

이번 제품은 DVB-T(Digital Video Broadcasting-Terrestrial) 방식을 채택, 유료 TV서비스인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Handheld) 방식과는 달리 무료로 공중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또, DVB-T 방식은 공중파 디지털 방송을 도입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해,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 제한적으로 상용화된 DVB-H 방식에 비해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이 제품은 7.62cm(3인치) 전면 터치스크린과 기존 휴대폰의 QVGA급 LCD(해상도 320×240) 대비 5배 선명하고, 넓은 화면 비율을 제공하는 WVGA(Wide VGA)급 LCD(해상도 800×480)를 적용, 보다 크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또,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녹화, 화면 비율 조정 등 주요 기능을 쉽게 사용하고, 휴대폰 뒷면에는 전용 스탠드를 추가해 TV 시청을 편리하게 했다.

HSPDA(고속하향패킷접속) 방식의 3세대(3G) 휴대폰으로, PC 화면과 같은 인터넷 풀 브라우징, 300만 화소 카메라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췄다.

LG전자 안승권 MC사업본부장은 “프라다폰, 뷰티폰으로 유럽시장에 구축한 터치폰 선도기업 이미지를 모바일 TV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LG가전, 이제 '건강' 까지 생각한다



LG전자가 생활가전을 기반으로 '건강가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키로 했다.

LG전자는 '07년부터 50여 명으로 구성된 DA사업본부 신사업 개발팀을 발족해 2년간 고객 인사이트 발굴과 테스트 마케팅 결과를 토대로, ▲개별 룸에서 침실, 세탁실, 주방 등 기능 중심 공간화되고 있는 주거환경의 변화 ▲고령화 사회 도래 및 삶의 질 향상 ▲'스타일' '헬스' 'Beauty' 등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LG전자 헬스케어 가전 사업은 '바디 케어(Body Care; 의료용 진동기, 승마기)', '워터 솔루션(Water Solution; 이온수기, 정수기)', '에어 케어(Air Care; 공기정화기)' 등 3대 핵심영역을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건강한 생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웰빙 라이프를 위한 '유비쿼터스 헬스(Ubiquitous Health)'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LG CNS의 홈 헬스케어 솔루션 '터치닥터(Touch Dr.)'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터치닥터(Touch Dr.)'는 LG CNS와 인텔이 3년간 공동 개발한 만성질환 관련 홈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환자들이 집에서도 전문 의료진과 전용 단말기를 통해 혈압, 혈당, 체성분 등의 생체 정보는 물론 식단, 운동법, 스트레스 등 생활 건강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LG전자 DA(Digital Appliance)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은 “LG전자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뿐 아니라 고객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건강가전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며 “글로벌 톱 수준의 생활가전 노하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를 비롯한 가전사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